

제2회 ODA 서울 국제컨퍼런스 결과

I. 기본사항

1. 행사개요

■ 행사명

: 제2회 공적개발원조(ODA) 서울 국제회의
The 2nd Seoul ODA International
Conference

■ 행사주제

: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간평가와 원조
효과성 제고

Achieving the MDGs : Mid-term
Progress Review and Aid Effectiveness

- 일시 및 장소 : 2008. 6. 3(화) 08:30~18:10,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 추진기관 : 외교통상부 주최 · KOICA, 유엔
한국협회 주관

- 참석자 : 사회1, 의장3, 발표8, 토론10명 등
일반 국내외 참석자 637명

2. 개최배경

- 국제사회는 MDGs 달성을 위해 개발원조(ODA)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중이나 지역별로 개발격차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박탈감 내지 소외감은 세계의 공동 번영에 많은 근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즉, 2015년을 기한으로 전세계적 개발 화두로 부각된 MDGs 달성을 위해 설정된 MDGs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사무총장직에 진출하였고, 경제력에 상응한 적극적 역할을 국제사회로부터 요청 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유엔이 주창하는 MDGs 달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전세계적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우리 정부가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한국정부도 원조규모의 확대, 원조시스템의 혁신, 원조효과의 제고를 통해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올해에는 MDGs의 달성 현황을 되짚어 보고, 개발원조의 효과성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발전, 고용문제 등 개발과 관련된 주요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논의를 통해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원조추진체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국제사회와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은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빈곤퇴치국"이지만, 개도상국과 국제사회의 MDGs 달성을 위해 "빈곤치료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주요 원조국으로부터 ODA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 국제사회의 원조정책 논의에 크게 기여하는 컨퍼런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회를 통해 지구촌

의 기아와 빈곤퇴치 등 지구적 개발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진지한 토론이 벌어질 것이며, MDGs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현재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개선점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세션별 발표 · 토론 요지

1. 제1세션 : MDGs 중간평가와 그 과제

■ Bernard Petit (EU 개발총국 부총국장)

“MDGs 달성 : 수사에서 행동으로”

(Achieving the MDGs : From Rhetoric to Action)

-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MDGs달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2008년도에는 아크라회의, 뉴욕회의, 도하회의 등 중요한 회의들이 개최되는 중요한 해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논의사항의 이행여부

- MDGs달성에의 첫 번째 도전은 재원확보인데, 무역장려, 농업분야 등의 지원이 중요하며, 약속 이행이 가장 핵심적 사안임. 그러나 현재 DAC회원국은 몬테레이 신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원조규모도 8%이상 감축되었고, EC도 처음으로 원조규모가 감소된 것은 실망스러운 상황

- MDGs달성에의 두 번째 도전은 원조체제의 세고 필요성인데, 원조체제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위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됨. 일례로, 케냐에서는 20여개 공여국이 13개의 조달기관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탄자니아에서는 보건분야에 600여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임. 이는 원조효과성 저하를 초래

- EU는 아크라회의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을 기대

- 공여국 간의 분업
- 예산지원 및 사업의 활성화
- 결과중심의 관리
- 원조의 예측가능성

-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저해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금난발을 중지하고 파리선언에 기반을 두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경고함. 또한 빈곤하고 취약한 국가들의 지지 없이는 코펜하겐 협정이 부용지불이 될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협정을 이행,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 Bruce Jenks (UNDP 사무차장보) 주세발표

"MDGs 중간평가와 향후 전망"

(Mid-term Review of the MDGs and Future Perspective)

- 첫째,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희망은 현실이 될 수 있으며, 일례로 한국이나 사하라 이남 국가 중 다수는 빈곤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성공사례임. 이러한 성공은 신중하게 구성된 프로그램 및 정부의 강한 리더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좋은 정책들로 인한 것임.

- 둘째, 우리는 빈부격차가 증대하는 등 해결해야 하는 도전과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사하라이남에서는 2015년까지 MDGs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가 하나도 없는 실정임. 이러한 맥락에서 2008년은 지금까지 한 공약들을 다짐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약속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관건. 한국은 항공권연대기금을 도입함으로써 원조약속을 이행한 선례가 됨.

- 셋째, 기후변화, 식량위기와 같은 새로운 이슈들로 인해 MDGs달성을 향한 행로에서 이탈될 것이 우려됨. 새로운 이슈들은 MDGs달성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이며, 특히, 기후변화는 남과 북이 분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분제임.

- 넷째, 민간부문이 MDGs달성에 기여하도록 권장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관심을 유발, 빈국에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08.9월에 UNDP 주재로 뉴욕회의를 개최해 비즈니스 모델을 강구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등의 논의를 할 예정. 개도국에 대한 민간 부문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양쪽 모두에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음.

- 다섯째, MDGs달성을 위한 다자주의의 역할은 양자주의로 대체할 수 없으며, 21세기 당면과제 해결에 있어서 신흥공여국의 참여가 요구되는 바, 다자주의는 다양한 공여주체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 Stephen Groff (OECD 개발국 부국장) 주제발표
“MDGs 달성과 자원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International Effort for Achieving the MDGs and Expanding Resources)

- 연결성과 상호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세계 속에서 개발협력은 전략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도덕적 의무 뿐 아니라 각국의 이해가 증진되고 있으며, OECD는 해결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협력에 더욱 참여해야 함.
-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등 여타 이유로 인해 각국의 ODA 실적이 감소하고 약속을 불이행 하는데 이에 대한 각성 요망. 공여국들은 201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대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OECD는
 - 원조규모 확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수준에서 미래지불의사를 밝히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 파리21을 통해, 좋은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개발정책설계와 MDGs 달성을 돕고자 함. 예측가능성의 향상은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임.

■ Sarah Cliffe (세계은행 동아시아 국장) 패널 토론

- 베트남은 개발협력의 결과 빈곤층 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성공사례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1)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공여국들에 부합하는 전략과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약속 및 의지, 2)공여국과 긴밀한 협력관계, 3)빈곤감소와 사회적 서비스에서 국가기관들이 발전을 주도토록 하는 국가시스템 활용 4)수원국에게 재량권을 주어 각 공여국간 분업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혜택은 있었으나 원조 소외계층이 발생

- 국가 간 MDGs 달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 촉구
 - 첫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고
 - 둘째, 국가 간 원조조정 필요. 특히, 가장 취약한(most fragile) 국가에 원조를 집중해야 하는데, 이에 실패하면, 성장하고 있는 다른 개도국들에게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조의 질 향상
 - 넷째,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모멘텀 생성 및 유지

■ Torgny Holmgren (스웨덴 외교부 개발국 국장) 패널토론

- MDGs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MDGs달성은 개도국과 선진국 공동책임임. MDG1(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에 대해서는 지역별이 아닌 국가별 판단이 필요하고, MDG2(초등교육의무화 달성)에 대해서는 지난 주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회의가 열린 바 개선점을 찾고 있으며, MDG3(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힘 증진)에 대해서는 식량위기에 봉착한 현 시점에서 빈국에서는 농업생산성과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바 달성이 가능성이 높아짐.

- 스웨덴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

이 노력하고 있음.

- ODA규모는 국방예산을 초월, ODA/GNP 비율은 약 1%
- 결과중심의 관리(Managing for results)
- 2007년 수원국의 수를 70개에서 35개로 축소하여 선택과 집중 적용
- 특정분야에 집중
- 원조의 50%가 다자기구를 통해 집행되는 등 다자적인 전략
- 개발전략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 국가전략을 개발
-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는 새로운 개발전략을 채택하고 무역, 환경 등을 통한 원조 확대 노력
- 08.2월 원조백서를 작성하여 6개의 집중 과제 제시

- 다양한 공여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새로운 ODA구조가 필요하고, 국제기구들도 새로운 재원통로를 포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김혜경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패널토론

- 제1회 ODA국제회의 개최 후, 지난 1년간 국내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 국외적으로는 유가상승, 식량위기, 기후변화, 미얀마 및 중국 자연재해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

- 2000년, UN이 MDGs를 수립하였을 초기에 시민사회는 MDGs 달성이 식량, 교육, 건강, 개발에 대한 권리를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하였으나, 몇몇 시민사회는 목표가 야심차지 못하다고 비판하였음. M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량, 보건, 교육, 개발에 대한 전지구적인 인권권리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의 의무로 지정(reaffirm)해야 함.

- EU 신입회원국은 EU회원 의무사항에 따라 ODA 규모 및 ODA/GNI 비율을 늘라울 정도로 늘렸으나, G8 회원국 중 미국, 일본, 이탈리아는 ODA/GNI비율이 가장 저조함. G7은 EU처럼 ODA관련 의무사항을 제정할 것을 촉구함. 또한, DAC 회원국이 MDGs달성에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신흥공여국의 원조를 고무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 개도국의 상호책임성도 향상될 것임.

- 수원국의 원조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기술적 원조를 제공하고, 국별 개발우선순위에 따라 원조해야 함.

- 빈곤퇴치를 위해 정부, UN, 국제개발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의 협조와 지지 없이는 MDGs 달성이 어려움. 시민사회의 역할의 일례로, 북구(northern countries) 107여개 국가에 연합체를 갖고 있는 반빈곤 네트워크,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는 2000년 G8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였으며, 남구 각국 정부(southern countries)가 MDGs 달성을 위해 개발, 채무변제, 공정부역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북구의 선진국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을 갖도록 촉구함.

2. 제2세션 : 원조 효과성의 제고

- 보다 효과적인 MDGs 달성을 위하여

■ Jackie Frizelle (뉴질랜드 국제개발청 부청장) 의장

-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MDGs 달성의 진전은 느린 편이며, 이에 몬테레이 선언에서 약속된 추가 재원확보 뿐만 아니라 원조 방식의 효과성 제고가 매우 중요함.

• 특히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실질적 이행이 시급

※ 원조의 증액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장치

(1) 몬테레이(Monterrey) 회담 및 몬테레이 컨센서스('02년)

: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정상회담으로, 공여국들은 2015년까지 원조규모를 GNI의 0.7%까지 확대하고 수원국들은 효과적인 개발재원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내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2)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05년)

: 파리선언은 국제사회원조의 파편화(fragmentation)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토대로 명확한 권고사항을 담은 국제적 프레임워크로써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harmonization), 원조와 수원국 우선순위간의 일치(alignment), 수원국의 주인 의식(ownership), 책임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역량개발 지원 등을 강조

■ Adnan Z. Amin (UN제재 수장회의 국장)

주제 발표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 유엔 시스템의 역할”

(From Aid Effectiveness to Development Effectiveness : The Role of The UN System)

- 한국의 ODA관련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작년에 이어 서울 ODA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함.

- MDGs는 개발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 프레임워크(accountability framework)를 제시하고,

국제원조의 중심점을 마련했다고 평가

- 국제개발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나 (e.g. 정치적 도구, 구제 등), 개발협력은 궁극적으로 다자협력의 도구로써 국제사회 확립과 강화에 기여하였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득이 되는 활동(enlightened self-interest)임이 확실

- 최근 들어 시민사회, 양자원조 기관, 기업, 신흥공여국 등 새로운 개발협력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이는 국제 원조 전달(aid delivery) 및 재원조달 시스템의 파편화(fragmentation)를 야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개혁이 요구됨.

- 많은 수원국에서 개발원조는 각 공여자가 각각의 우선순위와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원조를 제공하는, 즉 ‘뷔페’(buffet)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임.

- 이로 인해 특정 부분 원조는 포화상태이고 어느 부분은 심각한 재원부족을 겪고 있음
- 대부분의 ODA가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공여국 정부가 세금의 주체자인 자국의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어 원조를 제공해야하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국익과 수원국의 수요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매우 큰 도전과제임.

- 이러한 변화 및 도전과제는 유엔 내에서도 존재

- 유엔은 거대한 개발 mandate를 갖고 있으나, 시스템의 파편화(fragmentation)와 정책 및 사업간 불일치(inconsistency)가 UN 원조의 효과성을 저해
- 각 유엔 기구들은 자신의 mandate와 우선 순위대로 개발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개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추진하는 중앙 거버넌스 시스템이 결여
- 각 기관의 기술적 능력과 전문성을 포괄적 개발 전략으로 전환함이 긴급
- 이와 관련, 2005년부터 유엔개혁, 특히 개발협력관련 유엔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 현재 시범 중인 'One UN at the Country Level' 이니셔티브는 수원국 내에서 UN 기구들의 활동의 조정과 일치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이같은 유엔의 노력과 함께 공여국들은 파리선언에 언급된 원조조화에 대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

- 국제개발사회의 3대 도전과제로 다음을 선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중

(1) 국제식량위기

- 국제식량위기의 근원은 지난 몇 십년간 전 세계적으로 농업부문을 소홀히 한데

따른 것이며, 특별히 선진국의 잉여 식량물자가 개도국의 식량원조로 사용되면서 개도국의 농업분야 투자부족으로 이어지고 농업 생산성의 저하를 야기한 데 있음

(2) 범지구적 보건 문제

- 말라리아, 결핵, HIV/AIDS 등 질병의 영향은 아프리카 개발 기반 전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개발 잠재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음.

(3)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 기후변화문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섬 국가들의 생존을 위협
- 현재 기후변화문제는 국가간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음
- 그러나 개도국(특히 아프리카 최빈국)은 기후변화를 야기하지 않았으므로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에 대한 비용을 선진국이 부담할 것을 촉구
- 이와 관련, 국제사회는 기존의 ODA를 재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원확보를 통해 기후변화관련 개발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진 개발협력 행위자들간 이루어지고 있음

- 수원국들은 공여국의 진의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진국의 조건부 원조와 타이드 원조에 대한 비판만을 앞세우고 있어 두 그룹 간 협력에 장애를 초래
- 공여국과 개도국간 진솔한 대화기회 마련과 서로 다른 관점과 이익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간 대화 확대 필요

- 특정 분야에서의 원조의 효과성이나 애매모호한 원조효과성의 '도덕성'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
- 특히 무역과 원조의 필연성을 강조하며 국제농업무역체제 개혁을 촉구
- 무역자유화의 혜택은 국가 무역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누릴 수 있고, 대부분의 개도국은 현재 농업부문에 비교우위를 지님
- 그러나 선진국의 농업보조정책은 개도국의 무역 경쟁력을 심각히 저해시키고 그들의 자립 기회를 박탈
- 따라서 무역분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좀더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개발'의 정책 필요
-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은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공여국이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 기존의 원조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
- 특히 고유가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로 원조를 축소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기상

황일 수복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

■ Matthew Sudders (영국 국제개발부 양자관계과장) 주제발표

“원조 효과성 : 새로운 친구자”

(Aid Effectiveness : The New Frontier)

- 영국개발청(DFID)이 설립된 지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과 같이 몇 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ODA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는 처음 참석하며, 서울 ODA 컨퍼런스를 높이 평가
- 한국 국제개발협력 관련 노력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제안
- 한국은 개발 원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성공사례로서 ODA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
- 금년에 Non-DAC 국가 중 유일하게 파리 선언의 모니터링에 참여한 것과 OECD/DAC 가입 추진 노력을 높게 평가
- 그러나 ODA 집행 기관이 너무 많으며 ODA 시스템 개혁과 원조의 언타이드화 노력을 계속 해 줄 것을 당부
- 아울러 한국의 ODA 규모 확대노력과 향후 추가 재원이 지금까지의 ODA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ODA가 되도록 노력 필요

- 파리선언이 공여국 중심의 어젠다라는 지적은 파리선언의 서명국 중,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며, DAC회원국이 주도하는 했으나 수원국과의 많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합의임.

- 파리선언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그것이 최종 목표에 대한 것인지, 공통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과정(process)에 대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 유도 필요

- 파리선언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긴요한 충분한 도구는 아님을 강조

- 파리선언은 일부 원조 영역은 포함하지 않으며, 개발협력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처신(behave)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는 없음
- 파리선언은 최소한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으로 이해되어야 적당

- 2008년은 아크라회의, 도하회의 등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고, 각종 국제회의의 합의들이 결과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약속 추적자”(Promise Tracker)가 약속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필요

- 영국은 '08.9월에 개최될 Accra 회의에서 원조의 예측성(predictability)과 상호 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을 강조할 예정

- 종종 공여자들은 마치 누군가를 고용한다고 하면서 언제 얼마나 월급을 줄 것이고, 이것을 언제 알려줄지도 가르쳐 주지 않는 듯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수원국에서 많은 혼선을 야기

- 원조제공 약속 이행에 대한 책임은 자주 논의되지만, 정작 원조의 효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는 종종 간과되는 경향

- 마지막으로 원조의 효과성을 위한 생각의 전환 및 자세의 변화를 촉구

- 개발협력 실무자들이 국가나 기구 차원의 약속 뿐 아니라 개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또 자신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이 본인의 어머니에게도 쉽게 설명하고 이해될 수 있을 만큼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던져 보며 실무에 임할 것을 권고

■ 장현식 (전 KOICA 정책연구실장, 현 KOICA 이사) 패널토론

(Aid Effectiveness : The New Frontier)

- 파리선언에 대해 다른 해석이 존재함

- '08.4월 한일이 공동주최한 Non-DAC 방콕회의에서 신흥공여국 대표들이 파리선언 이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선언자체를 자신들의 결과물이나 목표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이 관찰됨

- '08.5월 OECD/DAC 고위급 회의에서 많은 수원국들이 파리 선언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음.
- 수원국들은 파리 선언 5원칙은 어렵고 모호하다고 생각하며 수원국의 입장보다는 DAC 선진공여국의 입장을 담고 있다고 이해
- 아울러 수원국의 입장에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6개 우선순위(역량개발, 예측성, 조건부해제, 원조분업, 인센티브창출, 언타이드화)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공여국들의 이해와 지원을 요구

- 파리 선언은 매우 의미 있는 개발협력 프레임 워크이지만 공여국의 상황에 따라 신축성(flexibility)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이해와 이행을 더욱 더 용이하게 할 필요 강조

■ Tom Arnold (아일랜드 CONCERN WORLDWIDE 회장) 패널토론

- CONCERN WORLDWIDE는 아일랜드에 본부와 30여 국가에 현지사무소를 두고 약 2억불의 예산을 가진 국제 NGO로서 북한에도 사업 운영 중
- 한국의 개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현재 개도국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줄 것을 부탁

- 세계 식량위기의 심각성 증대와 대응방안 긴급요

- 식량위기는 전세계 빈곤층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MDGs 달성을 더 어렵게 하고 있음
- 현 위기는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단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 전 세계 정부들은 현 위기가 지난 30년 동안 농업정책을 경시한 결과임을 인지하고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과 함께 장기적 대처 방안 강구 필요

-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

- 공여국간 부담 공유(burden sharing) (특히 석유 부국들의 개발원조 증대 요망)
- 유엔기구 및 정부와 NGO간의 협력 증대
- 민간부문(전경련), NGO, 정부 간의 파트너십 활성화

- 특히 정부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보다 더 존중하고 시민사회는 보다 더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제공할 것을 촉구

■ Gabriel Ferrero (스페인 외교부 개발협력기획정책 부국장) 패널토론

-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민주주의 틀 안에서,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하부상달식(bottom-up) 원조와 시민사회 및 기업의 참여가 중요

- (2) 개발정책에 누가 정통성을 가질 것인가.
- (3) 파리선언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개발국가간의 글로벌 관계 및 경제적 입장 차이

■ Stefan Leiderer (독일 개발연구소 연구원) 패널토론

- 파리선언은 MDGs달성 및 향후 개발정책방향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가장 포괄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여국간 협력하여 국제적 체제에 대한 약속을 한 것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 그러나 파리선언 원칙의 개념들이 모호한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
- '08.9월에 개최될 아크라회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 원조규모 증대와 효과성 제고에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단순히 절차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원조에 관한 모든 교훈을 종합하여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에게 플러스가 되는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도전과제가 존재
 - (1) 정책의 일관성 구축 및 유지

3. 제3세션 : 원조와 글로벌 이슈

■ 선준영(유엔한국협회 부회장&CEO) 의장

- ODA와 글로벌 이슈의 상호 연관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ODA가 MDGs의 맥락 하에 추진될 때 빈곤 퇴치, 기아감소, 질병퇴치, 보건제고, 교육 확대 등이 가능하며 이는 개도국의 역량 개발에 궁극적인 도움을 가져다 줄 것임
- OD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다양한 문제가 상충할 수 있고 따라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상호절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 어떻게 하면 한 분야를 희생시키지 않고 모두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세 번째 세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임

■ Koro Bessho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국장) 주제 발표 "기후변화와 개발"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 주제와 관련된 세 가지 언급

- 기후변화는 여러 지역에 가뭄과 홍수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농업분야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글로벌 이슈의 악영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고, 이 조치는 반드시 개발문제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각 분야의 조화와 노력이 부족한 상태
- 다양한 이슈들 중 기후변화를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해결해야 하며 우리는 개도국을 지원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AIDS, SARS, 조류독감, 테러 등의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개도국들이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음

- 기후변화 문제는 전 지구적, 인간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야 함

- 두 가지 분절 상태에 대한 고찰이 필요

- 원조체제의 조화 부족으로 특징한 문제가 대두되면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여 일관된 개발계획 없이 원조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의 교란이 발생

-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개발원조 지원활동, 글로벌문제 등이 모두 다른 국제기구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이며 기관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이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음
- UNDP의 2007~2008년 보고에서는 MDGs가 기후변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명확히 나타남
- 서로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제한된 자원을 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임
- 각각의 글로벌이슈와 ODA는 상충하기 보다는 모두 협력해야 함

- 개발과 기후변화가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이 둘을 동시에 협력하여 달성할 수 있음

- 기후문제로 MDGs의 달성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과 같이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함
- 기후변화는 주로 선진국들에게 책임이 있고, 선진국은 개도국이 이 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이 같은 문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일본은 100억 달러의 기금으로 개도국에게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Cool Earth Partnership”을 제안하였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개도국에게 달려있음

- ODA를 실현함에 있어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최순홍 (UN 정보통신기술국 사무차장보) 주제 발표 "UN과 ODA : 정보통신기술의 관점" (The United Nations and ODA : An ICT Perspective)

- UN이 ODA 사업에 참여한 역사는 매우 김
 - UN의 1970년 총회에서는 ODA 규모를 GNI대비 0.7%로 늘려 개발도상국을 돕겠다는 목표를 채택했고 그 후 UN과 많은 공여국들은 개도국을 지원하여 원조사업을 조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
 - 2000년에는 189개의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새천년 개발목표를 채택했고 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함께 노력하여 빈곤퇴치를 위해 힘을 모으는 데 기여함
 - 그 이후 ODA는 MDGs 달성의 주요 재원으로 고려됨
- 지금 UN 내에서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데 우선순위를 두자는 새로운 개혁운동이 일어남
 - UN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다양한 규범과 방법들을 제시해 옴
 - 평화유지를 위해 UN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 세계의 국가들은 더욱더 UN에 기대를 걸고 있음

- 인도주의적인 사업과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
- UN 사무총장은 최고빈곤인구 10억 명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위한 ODA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 보건,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범지구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
- UN은 세계유일의 보편기구로서 모든 국가들을 아우르며 국가들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국제사회의 문제를 범지구적인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정보통신의 이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혜택도 점차 확대되었지만 정보사회의 격차는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선진국과 빈곤국의 차이를 더 크게 벌여놓음
 - ICT의 정보교환을 통해 국민들은 알권리가 충족되고 정부는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ICT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국가, 지역, 국제적인 수준에서 ICT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ICT와 ODA를 접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
- ICT를 잘 활용하여 경제사회의 발전을 이룩

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1) 전략

-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ICT가 국가전략에 적절하게 반영되었을 때 국가개발 전략이 더욱더 통합될 수 있음

(2) 인적자원

- 인도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ICT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ICT전략이 적절히 개발되어야 국가의 경제, 사회적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제공될 것임

(3) 기술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
-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드웨어, 즉 컴퓨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전략, 인적자원, 자원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 그자체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4) 재원확보

- 정부와 비정부기관들뿐 아니라 기업은 가난한 사람들이 ICT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개발 사업은 수원국으로 하여금 외부지

원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원국들도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책임을 주어야 함.

- 원조조화는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서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

-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목표와 전략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중복을 피한다면 더욱 효율성 있는 원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원조조화의 노력으로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게 전달될 것이며, ICT가 이러한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것임.
- 정부와 비정부기관들은 ICT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공동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자적인 조화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한된 원조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함
- 수원국도 공여국에게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주적 노력을 이끌어 내야하며 ICT를 계기로 수원국과 공여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Milan Vodopivec (세계은행 노동시장담당장) 주제 발표

“고용과 개발 : 저소득 국가의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위하여”

(Employment and Development : Toward a Labor Market Paradigm for Low Income Countries)

-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개혁을 도모하여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 하지만 창출된 일자리들은 대부분 저임금, 저생산성의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성장이 빈곤을 타파하는데 근본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고용이야말로 성장을 빈곤타파로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GDP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노동 집약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GDP에서 인건비와 노동의 역할이 줄어들
- 전 세계에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채 1달러도 벌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층
- 최근에 들어서 MDGs의 목표에 고용을 포함시켰으며 여기서 말하는 고용은 완전하면서도 고생산성의 일자리, 품위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임

- 고용을 개발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결책을 제안

- (1) 노동시장의 운영 기본 틀인 MILES 접근법
- (2) 추가적으로 개도국에서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 필요

- 운영 기본 틀 MILES

- Macroeconomics(거시경제), Investment climate(투자 분위기), Labor market institutions(노동 시장 제도), Education and skills(교육), Social protection(사회 보장) 이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고용 창출을 증진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수요, 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또한 이 방법은 구속력 있는 제약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소들 중에서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요소들을 현재상황의 진단평가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함
- 고용을 창출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진단 도구를 활용해야 함
- 노동은 결코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부문의 제도를 살펴봐야 하며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단도구 중 하나가 현존하는 규정과 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임
-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구체적인 일자리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시범사례를 운영하게 됨

- MTF.S의 요소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실효성 높은 계약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7개 주요 부문
(1) 노동시장에 대한 진단을 개선하고 그 취약성을 파악.

(2) 투자분위기와 노동수요, 빈곤, 기후변화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

(3) 구조개혁, 세계화의 혜택과 비용에 대해 파악.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을 파악.

(5) 적합한 노동시장의 규정과 제도를 파악.

(6) 개발기술의 최적사례를 파악.

(7) 국제적 이주문제에 대해 파악.

-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인 다자 공여국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을 마련하는 목표

- 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것
-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책임인사, 연구원 등에게 기술을 지원할 계획
-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

- 고용문제와 개발문제를 통합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합리적인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

■ Mary Power (국제기상기구 재원조달국장)
패널 토론

- 기후문제는 선진국에게 많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집단적 노력이 절실하게 됨

- 기후 문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기후문제의 중요성을 자각해야만 함

- 공여국은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원국이 변화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아직 많은 국가들은 인프라가 부족 하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더 효과적인 정보 교환과 국가적, 국제적인 투자가 필요

■ Yoshiteru Uramoto (UN 공업개발기구 사무차장) 패널 토론

- 올해 1월말에 AU 정상회담에서는 아프리카 연합과 UNIDO가 같이 협력하여 아프리카의 산업화에 대한 세션을 마련했고 '지금 산업화에 대한 논의를 할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인본적인 문제에 산업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산업화가 말로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함

-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1달러, 2달러의 소득은 신경 쓰기보다 대신 많은 부의 창출을 원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조해 왔던 “빈곤 퇴치”의 개념은 “부의 창출”로 다시 생각해야 함

- MDGs의 중간평가 시점에서 우리는 목표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서 최빈국(LDCs) 10억 인구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나서야 다음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최빈국의 절반 정도는 MDGs에 대한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빈국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면 파급효과를 발휘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개발이 지속가능하도록 경제활동, 산업화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

■ Stephen Groff (OECD 개발국 부국장) 패널 토론

- 1980년 이후 농업에 대한 원조가 감소하고, 대규모 농촌 기업의 실패, 곡물 생산의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등 기본 사업 서비스에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왔으며 식량 위기와 관련한 최근 보고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9억 명이 농촌 빈곤을 겪고 있음

-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는 최근의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비료, 살충제 사용 축소와 함께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 선진국의 농업 분야 보조금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음
- 2006년 OECD/DAC는 ‘농업이 빈곤 인구에 어떻게 사용될까’와 관련한 보고를 발표
 - 식량 원조가 제대로 실시되었을 때 인명을 구할 수 있고 다양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지만 만약 식량원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것임
 - 2년간의 식량 가격 폭등은 빈곤국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따라서 단기적인 식량 원조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함
 - 개도국에 식량 제공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기적인 식량 원조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개도국 스스로는 자국의 농업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함



『국제개발협력』 논문기고 안내

한국국제협력단은 계간지 『국제개발협력』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이슈중 아래에 정한 내용이어야 하나, 이외에도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제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 종사자 및 국제협력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투고를 기대합니다.

1. 『국제개발협력』 발간목적

『국제개발협력』은 공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개발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OECD/DAC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3세계 개발 관련 이슈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

2. 『국제개발협력』 원고 게재 절차



1)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단, 우편접수 시에는 논문의 원본 파일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 혹은 CD 1매를 동봉한다.

주소 :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e-mail : callforpapers@koica.go.kr

Tel : (+82)31-740-0301 Fax : (+82)31-740-0681

- 원고 접수는 각 호의 원고 마감일에 따른다.

호	기 고문 주제	원고 마감일
2008년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 효과성을 위한 파리선언, 다자간 원조의 효과성 - 예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 다자간 원조의 효과성 제고 방안 	2008. 10. 31
2008년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d & Environment, Aid for Trade - 예사 UN기후변화회의와 기술협력, 개도국의 무역역량제고를 위한 원조의 역할 	2008. 11. 30

※상기 이슈는 발간 시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기고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발간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기고 논문은 국제협력단이 정하는 “『국제개발협력』 원고집필요령”(KOICA 홈페이지에 게시)에 따라야 한다.
- 기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게재될 예정이 없는 창작논문이어야 한다.
- 기고 논문은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

- 심사절차는 『국제개발협력』 편집을 위한 국제협력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기고 논문의 심사는 국제협력단의 절차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논문 기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3) 게재

- 심사를 통과한 원고는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한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국제협력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은 『국제개발협력』 편집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 논문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은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국 제 개 발 협 력 2008년 제2호

발	행	2008년 10월
발	행	인 박 대 원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정책연구실, 홍보위원회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461-8333
전	화	(031)740-0301
팩	스	(031)740-0681
홈	페	이 지 www.koica.go.kr
인	쇄	산하기획인쇄 TEL. (02)2272-5002(대)
